



# 플리백생산만 고집, 전문성 추구

장기근속자 확보로 품질안정을 생명으로 삼아

## 플리백 가공 20여년

지금의 정원산업(주)(대표이사 김종선)이 1977년 서울 창신동에서 삼원포장공업사로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 종업원은 2명이었다.

20여년동안 눈에 띄는 매출의 신장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안정된 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정원산업은 성동구 성수동, 안양 석수동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안산시 시화공단에 1991년도에 정착, 1997년 1월 1일 법인으로 전환했다.

갖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1990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우량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는

가하면 96년 10월 제32회 저축의 날에는 김종선 대표이사가 국민포상을 수상하였고, 제30회 조세의날에는 모범납세자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보더라도 모범기업임이 분명하다.

## 가족같은 회사분위기

대지 1200평, 건평 950평 코발트색 벽돌과 300여평의 아담한 잔디 정원으로 둘러쌓인 가정집같은 외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정원산업은 사실 35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다.

대표이사인 김종선사장은 일찌기 고향으로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정원산업 전경

공부를 마치고 자수성가에 성공한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종업원들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다.

"77년 삼원포장으로 간판을 내걸고 어렵게 시작한 저희 회사는 대기업 거래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김종선 사장

느끼기도 했으나 1980년 유한김벌리 신제품 개발에 동참, 우리나라 최초의 1회용 기저귀를 탄생시켰고 7색도와 10색도 인쇄기를 국산화 하면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오래된 이야기를 털어 놓는 김 사장은 남앞에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요란하고 혁신적인 경영방식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82년 봄 성수동 공장에 화재를 맞고 또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던 정원산업은 시련을 거듭

덜고 일어나 12색도인쇄기를 개발, 그후 14색도인쇄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중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확대되고 안정기를 맞아 김 사장은 자신이 어려웠던 기억을 되새기며 현재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

는 학생 등을 돕는 일에도 일조하고 있다.

정원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자리를 잡게 된데에는 신용과 품질을 중요시해온 때문인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뢰성있는 제품을 보다 미려하고 저렴하게 생산하여 적기에 공급하는 것만이 기업발전에 기반이 된다는 생각아래 사장을 위시하여 전사원이 '최고의 품질', 품질제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제품생산에 임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15색도 인쇄기와 SPECIAL HADLE STRING MAKING MACHIN을 확



▲ 최근도입한 15색도 인쇄기



정원산업(주)

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향후 시장에 대비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 설치한 15색도 인쇄기는 기존 14색도 인쇄기를 다년간 사용해본 경험에 의해 정원산업 기술진과 광덕기계 기술진의 수차에 걸친 협의 끝에 인력에 의존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켰으며, 모든 기능을 콤팩트화시켜 다 품종 소롯트화 되어있는 현실에 적합하게 맞추어져 있으며, 전면인쇄 15색도와 4+11, 5+10, 6+9, 7+8 색도로 분리인쇄를 할 수 있으며, 길어진 회로를 보완하는 장치가 삽입됐다.

또한, 현재까지 타업체에서는 1차 위치제어로 끝나고 있는 인쇄핀트 조절장치는 자동위치제어와 위치 보정제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DENCER 방식을 채택, 기술력과 고속화를 실현시키고 OPP인쇄시 솔벤트 코팅 기능을 첨부, 인쇄기에 바로 코팅 가능하도록 하였고, 메모리기능인 MR시스템을 도입, 인쇄제작시 저장 메모리 S/W하나로 메모리 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가동 시킬 수 있다.

정원산업의 강 병철 상무를 주축으로 한 개발팀에서는 8개월에 걸친 연구시험 끝에 SPECIAL HANDLE STRING BAG이라고 이름한 포장대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기존의 두루마리 포장대의 운반용 손잡이가 세로 방향으로 되있어 손잡이 반대측이 지면에 닿고 들어가는 사람의 다리에 접촉되어 운반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단점을, 운반에 편리하도록 개발함과 동시에 미관상 주는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며, 적절한 중량의 배분으로 실제의 무게는 같은데, 기존 형에서 느끼는 무게보다 가볍게 느껴지도록 했다.

튜브형태로 된 필름을 연속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름의 일부를 개방되게 절단, 점선 커팅, 타공 및 절취사선 등을 형성하고 포장대의 손잡이 위치를 길이가 긴 가로방향으로 형성하게 했으며 NON STOP 운전을 하도록 되어있어 정지 시간을 없애 생산성과 LOSS 절감 효과를 동시에 이룩했다.

이 기술은 이미 의장등록이 되었으며, 이 포장대를 생산하는 설비는 발명특허 출원을 끝낸 상태다.

돌보이는 내실있는 경영

그간 정원 산업에 몸담으며 누구보다도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서홍석 전무는 "국내기업은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백화점식 운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저희 정원산업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펼쳐 전문 중소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이달이면 15색도인쇄기설치가 끝나고 가동 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함께 다양한 제품을 선보





▲한가족같은 분위기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정원산업 가족

일수 있고 효율성을 높여 적은 인원으로 가동이 가능하며 불량률도 감소할수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납품거래선에 따라 경기변화가 예상되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의, 정성, 화목의 사훈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작업환경 개선, 사원복지 증진, 자질향상, 직원의 국내외 교육은 물론이고 노사화합을 위해 사원은 물론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피는 김종선 사장은 지난 5월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전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5월16일에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관리 모범업체로 선정대어 표창을 받기도 했다.

각 분야에서 보내온 축하의 화환으로 장식된 사장실은 검소하고 소박한 김 사장의 생활을

대변이라도 하듯 권위적인 분위기는 느낄수 없었다.

기업에 있어 인력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중소기업은 더욱 그러한 현상이 잦아 대우에 따른 인력의 이동이 잦고 그로인해 장기근속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정원산업의 경우는 전 종업원의 50%가 장기근속자로 품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15색도를 비롯한 그라비아인쇄기, 접지기, 평판셀링기, TISSUE ROLL BAG HANDLE STRING BAG M/C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Poly Bag 인쇄, 가공만을 전문업으로 해오고 있는 정원산업은 앞으로도 이 길만을 고집하며 폴리백업계의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선하 기자